

“설 특수도 없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울상’

전통시장, 대목은커녕 매출 예년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시장 밖 소상공인도 한숨...“고물가·탄핵 정국 더는 못버텨”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시장상인이 명절 특수 실종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고물가에 지역민의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데다 폭설까지 겹쳐 고객발길이 끊긴 탓이다. 자영업자들은 “예년에 비해 설 연휴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고물가에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설 명절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찾은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상인들이 펼쳐놓은 매대에는 설 연휴 동안 미처 팔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대인시장에서 50년 동안 흥어 장사를 해온 흥영숙(여·77)씨는 이번 명절은 처음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흥씨는 “본래 명절을 전후해 손님이 배 이상 있는데, 올해 설에는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면서 “대인시장은 수산물 환급 행사 대상 점포가 아니라서 그런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명절 필수 음식인 떡도 예외는 아니었다. 30년 동안 떡을 빻아온 이모(70)씨는 “그나마 찾아오던 단골들마저 평소 2박스 주문할 물량을 1박스로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 지난 추석에 비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인시장은 명절임에도 문을 연 가게보다 문을 닫은 가게가 더 많았다. 한 시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은 1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

광주시 남구 무등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시장에서 국밥을 판매하는 이근호(64)씨는 “지난해 명절보다 40%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시장에 손님이 있어야 식당을 찾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들 지갑을 닫는 분위기”라고 혀를 찼다.

가게 반찬으로 사용되는 부추는 1관(4kg)에 1만 8000원이었지만 최근 3만 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국밥집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가 오른데 손님은 줄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토요일이장이 열렸을 때는 매출이 30% 가량 올라서 장사할 맛이 났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연말 분위기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명절에는 손님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되려 줄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시장 안에서 분식을 파는 박미경(여·59)씨도 지난해 추석에 비하면 3분의 1가량 손님이 줄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박씨는 “보통 주말, 공휴일이면 매출이 최대 3배까지 늘지만 이번 명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며 “주변 상인들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루하루 유지만 하거나,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상인들은 연말 연초 혼란스러운 정국에 폭설까지 이어진게 악재라고 했다.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인정(여·53·북구 용봉동)씨는 “명절 연휴 주간은 주로 가족 단위 고객들이라 하루 매출이 큰 편이다.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을 접고 장사하려 나오는데 대목을 실감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 탄핵, 제주항공 참사 등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설특보까지 내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산구 하남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수훈(59)씨는 “설 연휴 기간 내내 반찬과 고기를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평소보다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명절 같은 대목에 기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감도 사라졌다. 물가 따라 음식 가격도 오르고 고물가에 자연스럽게 외식부터 줄이는 것 같다”며 “특히 눈까지 잔뜩 내려서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장사가 될리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다인 기자 kdi@/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동물보호소에 있는 알비노 라쿤, 왜 우치동물원 못 가나?

동물원 라쿤과 합사 불가...충남 국립생태원으로 옮기기로

광주 패밀러랜드 정문에 유기됐던 알비노 라쿤(1월 13일자 광주일보 7면·사진)이 국립생태원으로 거처를 옮긴다.

2일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에 따르면 알비노 라쿤 ‘라비’는 센터를 떠나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지내게 된다.

라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을 통해 광주시 우치동물원 입양이 고려됐으나, 우치동물원 측에서 동물원에 살고 있는 다른 라쿤과 합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환경부 소관 국립생태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생태원 측과 합의를 마쳤다.

최근 6년간 3마리의 라쿤이 유기돼 광주동물보호소에 입소했지만 국립생태원으로 이동 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것이 광주동물보호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7월 유기신고가 접수돼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광주동물보호소에 인계했다. 10일간 입양 공고를 냈지만 입양처가 구해지지 않았다.

라비는 50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알비노 라쿤으로, 1세 수컷이다. 광견병 백신과 기생충



처치를 마쳤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5·18 펠레 현수막 제재 조항 삭제

대법원 “상위법 넘어선 규제 무효” 판결에 “특별법으로 처벌”

광주시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5·18 펠레 현수막을 제재하는 조례를 삭제하는 대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령’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표시

방법 중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한 펠레·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고물 바탕 색에 적색·흑색을 2분의 1 이내로만 사용하도록 한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는다. 광주시는 2023년 정당 현수막

난립과 5·18에 대한 허위 비방을 막기 위한 제재 조항을 조례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인천·울산·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규제보다 과도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법 테두리 안에서 현수막의 크기, 위치, 설치 개수 등을 점검하고 내용의 경우 범죄 정당화·미풍양속 저해·인권 침해 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고법원장 설범식·광주지법원장 장용기 임명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63·사법연수원 20기·사진 왼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장용기(60·24기·오른쪽)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에는 김승정(55·27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오는 10일자로 시행되는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천안고·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남원이 고향인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금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000년 변호사를 거쳐 광주지법 부장판사, 목포지법,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김승정 광주지방법원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 유일영고·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유석동(56·28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오고 조영범(58·27기)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

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이흥권(56·24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배기열(60·17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원로법관에 지명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고, 박병태(58·25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한편,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역 법조계 부장판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광주지역 법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전일호(48·사법연수원 33기) 정읍지법 부장판사, 이창한(62·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김병호(55·31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명의 부장판사 중 2명은 지역 법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나머지 한 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판사 정기인사는 오는 7일 단행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